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9월 15일
제목	회복을 주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본문	누가복음 24:13~35

녹취

• 서론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할 영적 사실과 일이 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전도자는 반드시 알고 승리해야 된다. 다름 아니라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24시로 방학도, 이번처럼 추석 연휴 휴가 이러잖아요? 방학, 휴가, 쉽다 없다. 24시로 사탄이 전략을 펴는 게 있다. 시시한 것 그런 거 말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주 핵심 되는 것 오직 그것을 없애려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전략을 편다. 그 존재가 있다. 다락방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예로 많이 들었다. 초창기부터 저는 들었다. 영국에 어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임종을 맞고 있다. 숨을 거두고 몰아쉬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임종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울고 그런다. 이러할 때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모였는데 이야기한다. 책을 가져달라. 책을 가져와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책이요 하니까 과학책, 수학책, 대학교수로 가르치던 책 말입니까? 이때 스코트란 분이 말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부름 받기 직전인데 무슨 책이 필요하겠느냐? 과학책이나 수학책이겠냐? 진짜 책을 가져다 달라.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사탄은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이 구원의 복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다. 요 20:31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게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사탄은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 자나 깨나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전략을 편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하여튼 다락방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것을 못 깨닫게 한다.

우리 할머니께서 병원에 동산병원에 입원하셔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 저한테도 연락이 왔다. 손자다. 가보니까 아버지, 고모님, 작은아버님 저 멀리 계시던 친척들 다 와서 그 좁은 병실에 우글우글 있다. 돌아가신다고. 마지막 인사하고 기도하고 봐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오셨다. 저도 그래서 그때는 제가 부교역자 때라 송현교회 지금 하나교회 다락방 현장 수도 없이 뛰고 맡은 사역 하는데 바빠 죽는데 그 저녁에 밤에 갔더니 할머니 의식도 없으시고 저도 할머니에게 인사해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 부르실지 모른다. 눈감으시고 말도 못 하셨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인사하고 할머니 보니까 하나님 불러가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다락방 와서 깨달은 것,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근본문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말씀드리고 할머니 평생에 예수 믿으셨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머니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말도 못 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했다. 우리 할머니 안 믿는 분 아니다. 권사님, 기도의 대장이다. 영접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 마칠 때 할머니 눈물을 흘리셨다. 감사, 감격이 나오시는가 보다. 이제 곧 돌아시겠지 하고 아버지 하고 고모님하고 작은 아버지들 장례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런데 십몇 년을 더 사셨다. 평생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녀들 목사님들 많잖아요? 사모님들 많잖아요? 교회들 위해 기도하시고.

사탄이 하나 모르게 한다. 이 세상 신 사탄, 고후 4:4에 보니까 요놈이 역사한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 말고 불신자들도 망하도록 이미 망했지만 또 망하도록 혼미하게 해서 한 개만 모르도록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그리스도 모르도록 한다. 바리새인들이 왜 나쁜 놈인가? 실력도 있고 종교 지도자요 대단한 분이다. 다 존경한다. 그러나 가장 나쁜 놈이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 참 빛되신 그리스도 왔는데 참 빛 왔지만 못 알아본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한 개다.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진짜 못 깨달은 것이다. 이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또 그리스도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20:31 초창기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들으면 감격이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함이라. 다른 이름이 지구상에 없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되셔서 이 말은 살아계신다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다.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자녀 전도자, 교회와 함께하시고 여정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확신해야 된다. 영세 전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영세 전에 벌써 예비하셨다.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구약에 계속 이 분을 예언했다. 드디어 오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왜? 구속사역 하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마지막 강단 감람산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1,3,8 말씀하시고 그다음 승천하시는데 천사들이 말한다.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 너희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 그리스도, 만 왕의 왕 되셔서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본론

1.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배경에 말씀이 나온다. 낙심하여 완전 좌절해서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보다는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오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잡혔을 때 다 도망갔다.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다.

1) 가롯 유다

2) 베드로

여러분 사기당해 봤죠? 있습니까? 그런 분 많더라. 또 사랑에 배신을 당해봤다 그런 분도 있고 군에서 보니까 애인이 군에 간 사이에 휴가 때 가보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래서 휴가 마치고 들어와서 괴로워하고 제가 그때 복음 알았으면 복음 주고 새 힘 얻게 했을 텐데 그런 거 많이 봤다. 심지어 총으로 자기를 자해한다. 애인하나 배신했다고 사업에 배신, 사기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인간에게 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이 심어놓은 망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믿었던 신하가 배신한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왕, 대통령, 회사에도 기밀 어찌고 해서 배신하고.

그것 말고 오늘 예수님 사도로 제자로 불러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하게 쓰시고자 훈련하고 함께하신 이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했다. 베드로보고 네가 오늘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손사래 쳤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열한

사도 열두 사도 열한 명, 그리고 70인 제자도 많잖아요? 여 제자도 많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맹세했다. 단언했다.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여자가 일하는 여자가 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 아니냐? 또 다른 사람 와서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또 마지막 세 번째도 어떤 사람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그거 아니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할 때다. 맹세하고 저주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나는 모른다 저주까지 했다. 이러할 때 닭이 마침 울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 마주쳤다. 귀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다.

3) 다른 제자들 - 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마가복음에 예수님 잡히실 때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면 된다. 제자들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법정에 가고 어찌고 하니까 다 도망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롯유다만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했지 베드로처럼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우리도 장담 못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 정말 있어야 된다. 망대로 든든히 세워져서 그래야 언약의 말씀, 주신 말씀과 복음이 그리스도로 답, 결론, 끝, 확실해야 망대가 되어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때 얼마나 환란, 핍박 어려움 많은가? 우리 다락방 지금도 핍박받거나 손해 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답 안 나면 흔들린다. 777 망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웃었다. 비행기나 하면서. 그런데 회개했다. 이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 아닌가? 내 것이 되고 나의 망대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가 되어야죠. 망대가 확실해야 언약의 여정 갈 때 초대교회처럼 환란, 핍박, 죽음, 순교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4)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 도망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인 제자겠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낙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지금 난리 났다. 지금 나는 괴로워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낙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절망하여 슬픈 빛을 띠고 멀리 도망가는 중이다. 혹시 우리도 어려움 있을 때 사건, 문제, 또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봤는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전도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부활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받았다. 채찍에 맞고 공회 법정에 서고 온갖 수치와 헐박당하고 죽음의 위협당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했다.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 내가 비참함 당하는 것 당연하다, 오히려 기쁘다고 했다. 확신의 망대가 감람산 언약 40일 동안 1,3,8 주께서 말씀하실 때 확실한 망대로 자리 잡았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치유다. 복음은 길이다. 복음은 뭐다 다 정의한다. 복음은 그리스도는 또 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무슨 문제, 무슨 잘못, 무슨 것도 복음은 회복시켜 주신다.

1) 찾아오심

그렇게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보니까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 그 말은 안 믿는다. 도마도 도망갔다. 또 안 믿는다고 했다. 그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토마토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시면서 사도들, 70인 제자들 다 복음과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다. 복음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더군다나 영적문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저주의 문제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도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회복시키는 것이다. 회복이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도망가고 배신자들인 어찌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그렇게 했다. 이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다 그리스도 께서 회복시키셨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화보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저도 그래서 복음을 그러네, 율법 말고 복음 해야겠다. 이 은혜 진짜 되어야겠다 그런 적이 있다. 다름 아니고 우리나라 간첩들 아직 우리나라에 많다. 옛날에도 많고 많이 활동했다. 부수고 우리나라 위협을 가한다. 잡혔다. 간첩죄로 당신은 몇 년 살아야 된다 심지어 국가를 위험하게 했다고 사형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법이 있다. 간첩이 내가 자수합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자수합니다라고 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자수하면 묻지 마 끝낸다.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한다. 신분 준다. 주민등록 바로 준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버빙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다. 보내신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나니, 이 사탄과 관계된게 끝나게 했다.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깐 그래 말이야 이 간첩이 옛날에 많았다. 실미도 영화에도 보니까 있고 그 간첩이 지나가는 버스에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갔다. 버스 폭발하고 죽고 그런 간첩일지라도 내가 정말 자수합니다라고 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또 설명들을 때 이 악한 악한 놈이라 감옥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딱 한 마디 누가 한 마디 하면 감옥에서 나오고 복권, 사면된다. 그게 뭔지 아시는가?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법적으로 그렇다. 통치권자 대통령의 사면권이다. 대통령이 법으로 사면하면 법적으로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사면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 일단 보세요. 베드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도 안 믿어졌다. 허탄한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랬다. 안 믿는다. 절망, 낙심하여 옛날로 돌아갔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만 가지 또 다른 제자 팀사역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물고기 잡았냐고 하니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른다. 그런데 알게 되었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막 뛰어왔다. 그다음에 또 베드로가 이런 장면이 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것 불에 구워서 같이 드시고는 베드로에게 속삭이신다. 팀사역 하신다. 베드로보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 질문에 너무나 얼굴이 벌게지고 황당할 정도로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다. 세 번째는 너무나도 미안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회복시키신다. 네 어린양을 먹이라. 정말 절대 미션 다시 회복시키셨다.

2) 감람산 40일 - 제자들 다 불러 회복시키시고 오직 1,3,8 언약 주심

또 감람산 마지막 강단 40일 동안 제자들 다 불러 모으셨다. 또 회복시키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열두 사도, 70인 제자 다 왔는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고 거기 와서 주를 뵈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하여튼 가지가지다. 안 믿는다. 그런 제자들 70인 제자들 다 회복시키셨다. 보좌의 비밀, 능력 주셨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확신을 주시고 보좌의 능력 약속하시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요한의 물세례 아니고 내가 붓는 세례인 성령의 세례 받을 것이다. 보좌의 능력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제자들 마가다락방 제자들 어떤 자들인가? 300% 무능하고

힘없는 자, 실력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갈릴리 출신들이다. 바리새인들이 막 짓밟는 자들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모든 전도자들에게 300% 참된 능력인 보좌의 능력, 성령충만 약속하시고 눅24:49에도 동일하게 나와있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것이다. 보좌의 능력 약속하셨다. 성령충만 약속하셨다. 마지막에 누가복음에도 나와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사명, 미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절대 언약, 절대 미션 절대 증인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즉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역사들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 너희를 통해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정말 너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 언약으로 잡는다. 우리 교회도 실력과 힘없지만 이 언약 잡는다. 대구 복음화, 프랑스 복음화, 프랑스 있는 유럽 53개 나라 복음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 언약을 잡는다. 절대 언약이다.

3)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역시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주께서 곁에 오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낙심, 좌절해서 완전 절망해서 믿음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려가는 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셨다. 오늘 부활하신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서방 찾아오는데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불신앙은 하지 마시고 틀림없는 영적 사실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 예수님 물어봤다. 도대체 무슨 슬픈 얼굴을 하고 길을 가시며 대화하십니까 하니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색하고 소식 못 들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모르십니까? 이랬다.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따르고 훈련받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시고 다른 제자들이 살아났다더라, 부활했다더라 난리 소문이 나고 지금 두려움 떨며 이려고 있다. 낙심하여 슬픈 얼굴을 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25)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26)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27) 말씀으로 풀어주셨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사명 확인하는 게 내가 그러겠습니다, 믿습시다 결의한다고 손들고 데모하는 사람 노조들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으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약속된 말씀 모세로부터 시작된 예언된 언약 풀어주셨다. 그리고 설명하셨다. 설교죠. 이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중에도 고백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 절망, 불신앙 하는 두 제자들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중요한 회복을 주셨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

또 그다음에 미션을 회복하게 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제 날이 저물어 더 가시려고 했다. 이러니까 두 제자가 우리랑 같이 유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여관, 식당에 함께 들어갑시다. 주무시러 갑시다. 그리고 식사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아멘하고 예수님 축복하시고 감사기도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깨닫게 되었다. 그 즉시 두 제자의 눈에서 사라졌다. 부활하신 주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령한 몸이시다. 그 즉시 사라졌다. 이 제자들이 확신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즉시 절망과 나락의 불신앙의 길을 내려가는데서 완전 회복하여 미션 회복하여 혹시 죽을 수 있는 예루살렘 현장에 즉시 돌아가서 열한 사도와 다른 제자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과연 살아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과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다 증거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확신 주시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램네프 운동에 절대 언약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미션들이 완전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결론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즉 복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도 회복시키신 주 되신다. 다른데 없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역을 한 일 당하고 무슨 일 생기면 가장 친한 친구, 친척 중에 말 통하는 사람, 잘 아는 지인들 그런 분에게 가서 쏟아낸다. 술 한잔 하거나 커피 한 잔 하면서 말을 하고 나면 시원하기는 후련한데 답이 아니다.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 정말 회복되고 우리의 진짜 치유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주는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 또 도망갔지만 이 제자들 다 회복시키셨다. 그 은혜와 사랑 나타내셨다.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 힘입었다. 특별히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다. 서울대 안 나왔다. 유학 안 다녀왔다.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 소르본 대학, 파리 몇 대학 유명한 대학 많다. 유학 안 했다. 전부 갈릴리 출신, 실력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회복시키시고 보좌의 능력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약속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 하셨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똑똑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도자들에게 준 게 아니고 오직 1,3,8 붙잡은 회복과 치유함 받은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이 받았다. 그리고 가롯 유다 빼고 딱 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 하다가 즉 전도, 선교하다가 가롯 유다 빼고 다 순교했다.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다.

동일하다. 우리도 부족하고 못나고 힘없고 어찌면 300%

무능한 우리들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보혜사 성령 보내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특히 참된 능력, 보좌의 능력 성령충만 주신다. 성령충만 약속하셨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약속하셨다. 베드로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 120명이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보좌의 능력 힘입어 환란, 핍박, 고난, 어려움, 그리고 모든 단절, 모든 손해,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 굴하지 않고 다 순교했다. 사도들 특히 이 핍박, 환란 속에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전하는 증인 되었다. 사탄의 망대 다 무너졌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님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에 답 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의 능력과 비밀로 함께하시는 이 것을 확신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대구, 칠곡 살리는 120 지교회, 프랑스 선교, 유럽 53개 나라 유럽 복음화, 더 나아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우리의 후대들 네피림 사탄 서밋에 내어주지 않고 살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램네프 운동에 발판 되며 주 역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지금도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 통하여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며 특히 참된 능력, 보좌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증인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오직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